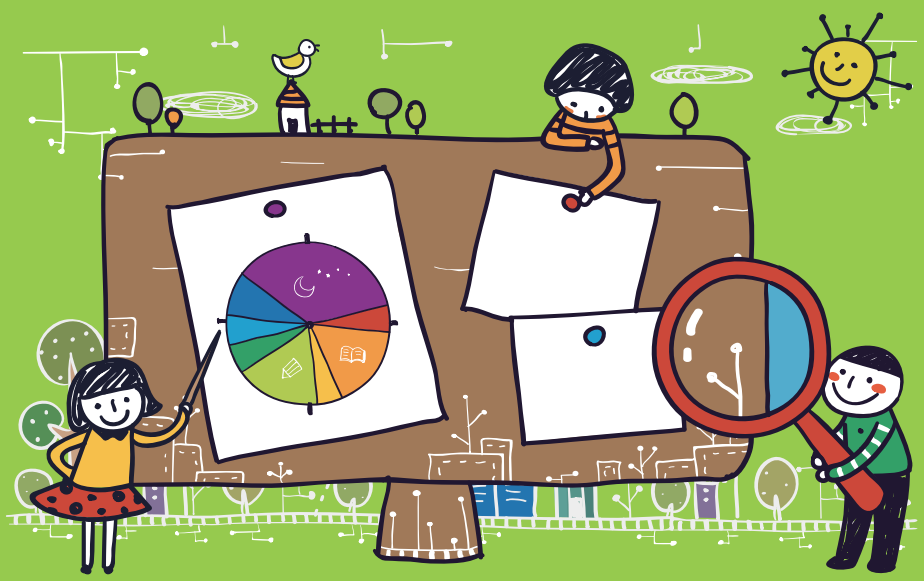
특별대담

내가 쓴 교과서 이야기 ❶

2025년 『교과서연구』의 특별기획은
'내가 쓴 교과서 이야기'를 주제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과서 개발의 아이디어,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개별 교과서의 특징과 활용 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119호 봄호는 초등 사회과 검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의 대담입니다.



특별대담 참여자

진행 **이동원**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초등사회과교육사, 교육과정과 수업, 교과서 개발을 주관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김경동 서울동구로초등학교 교장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국정도서 및 디지털교과서 집필위원, 사회과 검정도서 집필위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검정도서 집필위원, 2018~2023 교육부 학생평가 중앙지원단,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교원 양성과정 퍼실리테이터을 역임하였다.

박원진 경기안산초당초등학교 교사

초당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검정 사회 교과서, 동아시아 시민 인정 교과서, 지역화 교과서 개발 등에 참여하였다. 사회과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배성호 서울송중초등학교 교사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며 2007 개정 국정 사회과 편찬위원, 2009 개정 국정 사회과 집필위원,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사회과 검정도서 집필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인정 교과서, 지역화 교과서 집필 등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송이 경기화성한울초등학교 교사

초등학생들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사회 수업 실행 연구 및 자료 제작에 관심이 많다.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정보활용능력 등 학생들의 사회과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 진행자 외 대담 참여자는 가나다순으로 정리

특별대담

내가 쓴 교과서 이야기 1

- 초등 사회과 검정교과서 집필 이야기 -

이* 지금부터 교과서 연구 특별 기획 “교과서 집필 교사의 내가 쓴 교과서 이야기” 대담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현장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2022 검정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총평을 시작으로, 선생님들께서 직접 개발하신 검정 초등사회 교과서상과 교과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담 참여자분들께서 개발하신 교과서가 다른 출판사들의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주요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검정 통과된 교과서의 장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서 선정 과정, 선생님과 아동들의 검정교과서 활용 양상과 효과적인 활용 팁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검정 사회 교과서 개발 방향을 AIDT와 관련지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검정교과서 집필진 선생님, 교과서 집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들께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모

* 참여자 이름을 아이콘으로 표기
‘진행 이동원’ 교수는 ‘이’, ‘김경동’ 교장은 ‘김’, ‘박원진’ 교사는 ‘박’, ‘배성호’ 교사는 ‘배’ ‘한송이’ 교사는 ‘한’으로 표기합니다.

두를 집필하셨기에 거의 5년 이상을 거의 주말, 방학도 없는 생활을 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과정과 경험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씩 좀 듣고 세부 내용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개발 총평

"교과서 집필은 무한도전"

배 먼저 대담을 부드럽게 시작하기 위해, 교과서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 선생님들과 정말 친해졌는지를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교과서 어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친해지기 전에는 보통 "교과서 좋죠. 교과서 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답이 돌아오지만, 친해지고 나면 "교과서 좀 잘 쓰면 안 돼?"라는 답이 돌아옵니다(웃음).

사실은 개인적으로 교과서 집필은 꼭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보기 쉬운데, 정작 달을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교과서 집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사람들은 '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보다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교과서에 훨씬 눈길을 많이 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새롭게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랍니다. 아쉽게도 교육과정이나 지면 제한 등으로 그 내용이 다 담기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집필진 전체가 다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교과서 집필 과정' 하면 저는 '무한도전'이 떠오른답니다.

교과서 집필 과정은 무한도전의 느낌으로 그리고 개발 팀원 간 팀워크가 갖춰지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집필진 선생님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발자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교과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국정부터 검정으로 변화해 오는 과정들을 몸소 체험하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서가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고맙게 다가옵니다.

"교과서 집필은 참/참/참, 참고하기, 참아내기, 참신하게"

한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고, 2022 개정에도 계속 함께 작업했는데, 그러다 보니 2022 개정 때 새롭게 집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조언과 노하우를 담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글이 생각나서, 교과서 집필에 대한 총평을 '참, 참, 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참'은 '참고하기', 두 번째 '참'은 '참아 내기', 세 번째 '참'은 '참신하게'입니다.

처음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기대와 설렘에 가득 차서 "엄청난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다짐했는데, 그것은 저의 이상이었고, 현실은 달랐어요. 평가 기준과 한정된 분량 등 제약이 많았고, 결국 기존 국정교과서나 다른 교재들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참고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동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끝없는 회의와 원고 수정의 연속이었어요. 주말도 없이 회의하고, 평일에는 원고를 다듬고, 또 회의에 가면 엄청 까이고, 또 까

이고, 또 까이고, 다 까이고……. 이런 부분들을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과서를 새롭고 참신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 역시 이 교과서를 쓰면서 저의 교육관도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힘든 일이었지만 아주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 저는 2015 개정 적용 교과서 개발에 이어, 2022 개정 적용 교과서 개발까지, 총 4번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교사로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배성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과서를 개발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교과서에 어떻게 녹여낼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역량이라든지 또는 학습 내용의 적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실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분석의 과정을 거치며 재구성 및 교과 융합의 경험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개발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 주도성 강화, 실생활과 연계한 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삶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어요. 즉, 등하굣길, 학교 및 놀이터, 공원과 같이 학생들에게 친숙한 공간, 친구와의 교류 및 여가 활동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교과서를 통해 사회과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의 삶과 연계됨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상호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며 참 뿌듯했고, 보람되었습니다.

“활용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정 사회과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사용하신 지도서,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디지털교과서를 잘 활용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국정 교과서가 이제 사회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변경되었지요. 사실 그때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쓴 원고를 다시 써야 된다는 것과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집필했던 공동의 작업 위에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모두들, 처음에 개발에 참여해서 교과서 쓰실 때 국정 교과서 많이 참고하시고 7차 6차 교과서까지 다 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밖에 못 쓸까” 하던 관점에서 “왜 이렇게 집필되었는지 알겠네 ……”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제 몸에 제 칼을 대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참 쉽지 않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웃음).

저희가 이 교과서를 쓸 때 한 첫 번째 생각은 선생님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교과서를 우리가 함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선생님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집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활동을 제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집필내용을 되돌아보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화두를 던진 “역량”이나 “깊이 있는 학습”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필진들과 함께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국정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주로 저 혼자 고민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많았다면, 검정교과서를 집필하면서는 (제가 함께 한 발행사는 집필진 수가 많았습니다.) 수십 명의 집필진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국정 때도 교육부에 가면 심의과정을 통해 수정절차가 진행되던 것이 검정 교과서는 오히려 그 과정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출판사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쓴 원고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1~2%도 남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각자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공동체적인 역량이 모아 만들어진 교과서로 더 나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과서를 얼마나 더 집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서 개발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를 경험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교과서 개발상과 특징

이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속된 출판사별로 이번 검정 교과서 개발을 위해 그리신 좋은 초등 사회 교과서상과 이를 구현한 주요 특징 소개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고 예쁜 교과서"

한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일단 타이틀은 '친절한 교과서'를 꿈꿨어요. 저는 처음에 교과서를 썼을 때 이런 활동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구성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상한 활동을 교과서에 담아낼 때 가장 벽에 부딪히는 것은 '그럼 결석한 아이는 어떡하지?' 였어요. 선생님과 학생이 교과서를 매개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 수업에 결석한 아이가 교과서만 보고 수업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친절한 교과서로,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우리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개발 특징으로 잡았어요. 또한 사회 교과는 시간과 인간, 공간과 인간, 사회와 인간을 연결하는 교과이기에 이런 것들을 교

과서에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박원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상황에서 친숙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주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자는 것들이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진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는 "교과서는 예뻐야 한다"였어요.

교과서는 캐릭터, 삽화, 표지가 예뻐야 한다. 어쨌거나 애들이 맨날 보는 건데 딱 보기에도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삽화 하나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치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장치들, 말풍선이라든지 캐릭터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경험들이 교과서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4학년 2학기에 배우게 되잖아요. 민주주의의 의미와 의의를 학교 자치, 주민 자치를 통해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바람직한 태도, 꼬마 시민으로서 실천 방안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떤 약속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배려하며 지켜야 할 규칙, 더 나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 등은 모두 민주주의가 기반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역사 영역에서도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시기 당시 청소년이 쓴 일기, 학교 수업 사진 등의 실제 생활상을 들여다보면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감정이입 및 추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는 교과서를 표방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자기주도적 학습이 실현 가능한 교과서를 위해 내용 및 활동 선정 및 삽화 구안 등 모든 과정이 매우 치열했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내용을 학습하며 궁극적으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문 및 활동뿐 아

니라 작은 삽화나 말풍선, 캐릭터에도 학습 개념과 연계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장 적합성을 고려한 교과서"

김 여러 교과서를 모두 살펴보니 출판되기 전까지는 상호간에 비밀스럽게 작업했지만, 막상 책을 펼쳐보면 '참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를 만들 때 가장 중심에 두었던 부분은 '현장 적합성'이었어요. 어쨌거나 이건 교실에서 쓰여지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요구나 활동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적합성을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성취 기준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이런 과정은 타 교과서들도 비슷하게 거쳐온 것 같더라구요.

서로 간의 체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말 이게 우리 교과서만의 특징이야." 라고 할 내세울 만큼 확연히 다른 특별한 점이 없어요. 다만 그런 활동을 이끌어 가기 위한 내용 요소들은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활동을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저 교과서에서는 저런 식의 활동으로 활용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AIDT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종이로 된 교과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QR 코드를 제시하든지 혹은 교과서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학습 사이트에 관련된 요소를 제공할 방안을 연구하고, 그때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그걸 이 교과서에 어떻게 녹여 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어요. 즉 이런 과도기를 잘 넘어가기 위해 종이 교과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의 생활세계를 반영한 살아 있는 교과서"

배 선생님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다 치열하게 노력하신 부분들은 모두 공통

적인 거 같습니다. 사회 교과서가 이제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다양성이 생겼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갈지를 모색해 보았습니다. 처음 국정에서 검정으로 사회교과서가 바뀌었을 때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하에서 국정 교과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검정으로 바뀐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검정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었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 집필팀에서 핵심적으로 잡은 건 '살아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콘셉트로 교과서 집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국정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안전 지도를 만들고 구청에 개선 제안 편지를 써서 통학로를 안전하게 바꾼 사례가 수록되었는데, 전국 여러 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활동이 수업 시간에 전개되지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통학로 여건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오래 근무했는데 교과서 덕분에 통학로를 안전하게 바꿔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교과서의 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문제 해결과 학교 자치 등이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고자 우리 집필팀에서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즐겁게 준비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펼친 어린이들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본문 이외 별도 코너인 우친소(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등에 담아서 집필했습니다. 본문은 성취 기준이나 정해진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별도 코너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어린이 생활 세계를 생생하게 담아내었습니다.

"교과서에 실천 사례를 담아내려는 노력이 어린이의 생활을 담아내는 계기"

박 저는 2015 개정 때부터 사회 교과서 작업에 참여했지만 기존 국정교과서에서의 소재나 배성호 선생님같이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 변화를 실천해 가셨던 사례들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었다면 사회 교과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결국 '어른들의 이야기(?)'로 많이 채워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기존 국정 교과서의 한계를 넘어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까닭에 국정 교과서가 이런 내용으로 서술되었구나' 등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출발점이자 기준이 되어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꾸준히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회 교과서 검정 전환

이 지금까지 개발하신 검정 교과서상과 주요 특징 등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정 체제와 달리 검정 체제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게 될 때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 단원에서는 A 출판사의 교과서를, 이 활동에서는 B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게 검정 교과서 체제의 제일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교과서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교사가 모든 교과서를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준비할 것도 많아요.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는 1종이니까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김 제가 대학 졸업 논문 주제로 영국의 교과서 체제를 연구했는데, 방금 한송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과서 사용 방식이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기당 약 16차시 정도를 직접 구성하고, 각 차시에 맞는 교재들을 여러 출판사 중에서 고릅니다. 또한, 각 차시에 관련된 교구까지 함께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검정 교과서 체제가 그렇게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을까?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에 미국인 학교의 선생님과 안 되는 영어로 꾸역꾸역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선생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들의 흥미였어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아도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죠.

학생들에게도 사회 교과서는 "외우고 시험 보는 책"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집필진에게 이야기할 때도 "교과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원의 시작부터 중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라도 재미없으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채택은 교사가, 활용은 학생이"

배 교과서가 국정 도서였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서기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록 타이핑 중에 "사회 교과서 이거 너무 뒤처진 거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잡아놓은 물고기죠. 그렇기 때문에 삽화랑 디자인 단가 등이 너무 낮아서 질이 낮

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쓰셨는데 삽화 및 디자인이 조악하게 마련되어 전체적으로 교과서가 뒤처지게 보인 것입니다. 검정 교과서 체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지금 다양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정 교과서 체제로 진행되면 교사 전문성이나 이런 자율성으로 가는 지금이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부터 도입된 QR 코드를 써도 우리는 공공기관 것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자료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 함께 공부할 내용들은 일정 수준이 보장되면서도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 저도 학교에서 채택된 교과서 외에 A에서 만든 좋은 활동지가 있으면 활용하고, B에서 유용한 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자율성이 조금 확대된 부분들은 확실히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개발의 어려움

이 검정제의 큰 취지를 잘 구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 방향들을 설정하시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교과서 개발에서 난점도 많으셨을텐데요. 이와 함께 각각 개발하신 교과서에 현장 교사와 아이들을 위한 우리 교과서만의 베스트 아이디어, 자랑 좀 해주시지요.

"교육과정 분석의 어려움"

박 교육과정을 분석하기가 게 쉽지는 않았어요.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 해설에 쓰인 어휘, 개념 등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등을 명

확하게 파악하기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때에 '고장'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은 광역자체단체로 이해되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공간을 탈피하는 의미로 '지역'이란 용어만 쓰이게 되었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럼 '지역'이란 용어를 어떤 관점으로 서술할까에 대해 집필진들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와 '지역 문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사전에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우리 출판사는 이러한 용어의 정의나 개념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내의 성취기준뿐 아니라 성취기준 해설에 담긴 내용, 제한사항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반영해야만 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출판사나 집필진 모두 교과서 채택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김 그렇습니다. 다른 출판사 선생님들 만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편집진들이 대부분 중등 교과 전문가라는 점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서술 방식이나 지향점이 달라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중등 선생님들과 초등 선생님들의 교과서에 대한 관점의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 전문가로서 너무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감히 반론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니까 조율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편집진과 함께 내용을 녹아내다 보면 이게 중학교 교과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문장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텍스트나 어휘들을 해석하는 관점도 다르구요. 우리끼리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사회과 교육과정을 직접 집필하신 분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결국에 해결과 답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데 많은 자율성을 줬다고 하지만 그 자율성이 우리에게는 정말 자유롭지는 않은 자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집필진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과 교과서 영역 내 대립"

배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도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분석이 필수인데, 사실 교육과정 분석과 해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필팀에서는 역사와 지리 영역 교육과정 개발진이 계셔서 한결 수월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교육과정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듯싶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진들은 집필진과 현장 선생님들께 사회 수업의 자율권을 더 많이 드리면서 사회과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발전적 방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반사회, 역사, 지리 영역이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균등 분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단원 구성 등이 다소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억지로 시수를 늘리거나 또 시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등은 중등과는 달리, 사회과의 세 영역을 통합하면서 융합적으로 수업을 열어갈 여지가 많은데, 이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집필 때 커다란 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진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정교과서 집필진들과 관심있는 현장교사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과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폭넓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내실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업도 훨씬 알차게 구상하여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사회과 교육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저도 초등 사회과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기에 기존의 공청회 방식과는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교과서의 한정된 쪽수"

한 저는 개발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한정된 페이지였어요.

이 학습 내용은 도저히 4쪽으로 풀어낼 수 없는데 무조건 4쪽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고 이 서술에 두세 문장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 짧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교과서 쪽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쪽수 제한을 조금만 더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활동지도 좀 더 넣고 싶고 서술도 더 자세하게 풀어 쓰고 싶고, 본문 서술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페이지 한 쪽을 할애해서 만화로 채워서 풀어주고 싶은데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으니, 정해진 분량에 학습 내용과 활동, 사진과 삽화를 배열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제인데, 3 4학년 수준에서 사회 교과서에 조사랑 답사 활동이 너무 많아 이걸 풀어내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런 조사 활동하는 것들이 성취 기준에 있으니까 안 담을 수는 없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조사하고 답사하는 게 정말 너무나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조사와 답사 관련 활동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잘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기로 했어요. 조사 단계에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콘을 눌러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예시를 넣는 것으로 풀어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교과서 활동 시 사회 참여 및 실천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제약"

박 제가 맡았던 주제를 집필할 때의 일화인데요,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꼬마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해 보는 방안을 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공공기관에 이러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게시판 등에 올리고 싶어도 회원 가입, 인증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결코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교과서에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초등 사회과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과 관련하여 지

역사회와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초등학생들도 우리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다양한 활동이 제공됨으로써 꼬마 민주시민으로서 효능감 제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과서 쪽수 제한과 서술 문제"

김 수업에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풀어서 쓰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아니면 주석을 달기도 하고 이런 온갖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런 용어의 문제에 대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판사마다 그걸 어떻게 쉽게 풀어서 쓰느냐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래는 단어 하나로 딱 맞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을 길게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과서 쪽수 제한도 문제입니다. 한정된 지면에 친절하게 자세하게 서술하기는 힘든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은 모두들 책 속에 별도의 코너들을 만드신 부분입니다. 그 별도의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이나 활동에서 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보충했는데, 모든 출판사에서 그런 작업을 하셨고, 외국의 교과서들도 보면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떤 내용을 그곳에 담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각 출판사의 콘셉트에 따라 조금 구분되는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별도의 코너 학습이 사실은 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코너 학습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코너 학습의 주제나 내용이나 콘텐츠나 흐름을 잡아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 중의 하나였어요. 거기에다가 또 역량이니 창의 융합이니 이런 요소들을 모두 넣으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의 흐름 자체가 예전의 분과적인 성향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선명하게 나눠졌던 일반사회, 지리, 역사의 영역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통합적인 활동으로 승화하고, 타 교과와의 통합까지도 교과서에 녹여내려는 시도가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였습니다.

“선행 지식 확인의 어려움”

한 선행 지식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예를 들어 온도, 지형, 평균 등 아이들이 개념을 배웠는가를 타교과에서도 확인하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집필 교과서의 특징

이 교과서 개발상의 난점 이야기는 끝이 없네요. 그만큼 힘든 경험이었음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발하신 교과서, 교사와 학생들의 현장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배 검정 교과서가 나오고 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채택된 교과서를 가지고 각자의 수업에서 유쾌하게 변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선생님들께서는 채택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지만 아이들과 살아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 교과서도 보고, 해외 교과서도 탐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교과서를 만들고 논의하는 입장으로 너무 깊이가 더해지다 보니, 완결성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있는 현장과는 되레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자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김 제가 교과서 한 차시 분량을 쓸 때는 제 머릿속에 상상한 수업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지도안으로 쓰고, 지도서에는 학습지와 학습에 도움을 드릴 다양한 예시를 제시했구요. 그러면 현장의 선생님들은 그걸 또 변경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수업 스타일에 맞게,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의 사정에 맞게 바꾸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구상한 수업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르게 변형해서 진행하시는지가 매우 궁금하기도 했고, 실제로 과정을 들여다 보면 너무 재미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의도했는데 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의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를 가

지고 세안도 쓰시고, 추가되고 변형된 수업지도안을 자꾸 보면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안을 다시 또 수정해서 공유하는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과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내가 의도한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살펴보는 데는 그런 커뮤니티의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만 될 뿐이지 그 자료들이 모든 방향성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사실 교과서를 잘 쓰시려고 고민을 하셨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는 교육과정 문제와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수업 실천의 문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과정도 의미 있게 재해석해서 풍부히 만들고 선생님들이 현장 수업 실천도 풍부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네요.

그런데 여전히 각각 개발하신 교과서 자랑은 안 하셨습니다. 자랑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내 새로운 코너 개발 시도"

김 저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들과의 차별성으로,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의 코너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사 부분의 단원에서 생활사의 요소 중 음식 이야기와 같이 새로운 코너를 한번 도전해 봤어요.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새로운 코너를 만드는 거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들과 비교해서 좀 보니 여성사, 아동사, 생활사 등등 코너의 특징을 살리는 것들이 출판사들이 각자 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습 내용 확인을 위한 단원 마무리 문제 설정"

한 저희도 이야기 한 코너로 그 주 내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위주로 해서 설정

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 지리 단원에서는 어떤 영화 촬영지,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곳인지 등도 살펴보고 세계문화유산 등을 알려주는 코너도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과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한 단원이 끝나면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단원 학습이 끝나는 부분에 마인드맵 같은 것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과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단답형, O/X 문제, 서술형 및 논술형 문제, 자기 평가까지 넣어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실제로 단원 마무리에 5~6개의 문항을 넣은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문제, 문제,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니까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단원 마무리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활동 속에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

김 단편적인 내용의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교과서를 만들자"라고 해서 과정 중심 평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 나름 또 신경 썼던 것 중의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 도입과 주제 도입 혹은 단원 마무리, 주제 마무리에서 핵심적인 학습 요소와 함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흥미가 유발된 내용은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린이 생활 세계를 반영한 교과서"

배 네, 저희 교과서 팀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앞서 어린이 생활 세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생활사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는 우친소 같은 우리 친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꼭지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교문을 만들고, 또 통학로 안전 환경을 바꾼 사례들이 수록된 것이지요. 이처럼 전국의 사례들을 찾아 교과서에 담아내는 과정이 뜻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 지역

의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봤더니, 횡단보도가 너무 멀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전도 챙기면서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아이들의 제안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린이들의 실천과 생활 세계를 교과서에 담아내면서 살아 있는 수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랐습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 펼친 다양한 시도들을 교과서에 많이 담아내면서, 내용이 풍부하고 친근감이 있는 수업을 열어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요 개념들을 단원 시작 전에 제시하면서 사회과 수업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다뤄서 생활 속 사례와 사회 개념을 연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과서 내 주제 도입 부분의 중요성"

박 주제 도입 부분에 3~4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경험으로 시작하기', '생활 속 생각 열기' 등을 통해 경험을 바탕으로 배울 내용을 예상하고, 재미있게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배울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알고 싶은 점을 쓰면서 학습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 아울러 공부할 내용을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며 체계적이며 정교한 핵심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 집필 후의 아쉬움

이 이제부터는 검정 교과서 개발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교과서 출판시장의 디자이너 인력풀 부족"

김 저희는 정말 아쉬웠던 게 출판시장에서 디자이너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후발 업체들은 디자인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던 거 같습니

다.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니,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보면 디자인이 내가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나요? 이러면서 다른 출판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특히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과서가 좋으냐고 의견을 물어보면,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 선정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보다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훨씬 큰데,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늘 고민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삽화, 아이콘 같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할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캐릭터의 옷차림이나 소품 하나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 요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과할 수 있고, 반대로 적게 넣으면 뭔가 덜 화려하고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요. 출판사마다 고유한 색감과 디자인 특징이 있어 보였어요. 저에겐 기존에 탄탄한 디자인팀을 보유한 출판사들이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을 뛰어넘기 위한 삽화 표현의 고민"

박 삽화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면서도 동시에 발전적인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교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장애를 가진 학생을 표현할 때, 늘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적절할까?", "노란 머리카락이나 특정한 피부색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표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와 같은 고민입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은 다양할 텐데, 교과서 속 삽화에서는 그 표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쯤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출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북 디자인 관련 담당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교과서 디자인의 질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들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교과서 개발이 많다 보니 디자이너 품귀 현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에게 교과서 디자인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색감이나 미적 감각을 익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디자인 관련 내용 말고 채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출판 시장에서는 '이중 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책은 실제 독자인 어린이 청소년이 사기 보다는 보호자를 비롯한 어른이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반 단행본 출판사들에서는 진짜 독자인 어린이 청소년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검정 교과서도 비슷합니다. 검정 교과서로 공부는 학생들이 하지만, 정작 채택은 교사가 합니다. 실제로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선택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제도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과서 채택 과정 역시 초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교과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러 교과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적 평가보다는 인상 비평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새 검정 교과서가 나오고 나면 아주 깊은 논의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교사들이 다 해당 전공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번 교과서는 어때?' 하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과 담당 교사들의 품평회가 열립니다. 그 과정에서 검정 교과서 채택 및 교육 방향 설정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열심히 마련한 검정 교과서를 초등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검정 교과서 채택 과정의 아쉬움"

한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택 과정 중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채택 과정에서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효율성도 따지시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교과서의 장점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보고 고민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 선생님들만 보시고 결정하는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교과서를 전시하지 않거나 교과서를 전시해도 관심 있게 보시는 선생님들이 적은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 활용 플랫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모든 출판사가 교과서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고 학습 내용 및 활동도 교과서마다 큰 차이 없이 비슷해 보이니까,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편한 교육 활용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해당 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모든 검정 교과서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활용하는 교과서 1개를 채택하고 다른 교과서들의 재미있는 읽기 자료나, 활동지 등 장점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집필 교과서의 특징

이 선생님들이 속하신 교과서 출판사들의 특징과 한계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한계와 더불어, 사회자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교과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교과서상에 맞는 교과서 내용구성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개발하신 교과서가 가진 고유한, 특색 있는 내용구성논리는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 학습(PBL) 중심 교과서"

김 기본적으로 사회과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학습(PBL)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다른 학습 원리들이 중간중간에 스며들고, 또 차시마다 혹은 단원마다 주제마다 변형은 이루어졌습니다. 방법적인 것으로는 토의토론 프로젝트학습과 학습기능과 관련된 요소들도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과서"

한 저희가 항상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이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서로의 생각이나 활동지를 비교해 보고 그 활동을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해보는 등 의사소통을 통해 또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요.

"실천 역량 중심 교과서"

배 네, 저희는 '실천 역량'에 중심을 뒀어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을 비롯해 달라진 시대 속에서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질문을 통해 생각을 키워가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호기심을 키우며 질문을 통해 사회적 상상력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회 현상과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 개념 중심 교과서"

박 저희도 사회과 교과 역량 함양 및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구성하였고, 내용의 적정화 측면에서 학습 개념 중심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꾸준히 교차 검토하며 이를 구현하는 부분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현장 활용팁

이 그럼 마무리 질문으로, 검정 교과서를 현장 교사와 학생들이 잘 활용하기 위한 팁과 함께 발전적인 검정 초등 사회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의융합활동을 더 활용"

김 교과서 내에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저희 교과서는 대표적인 것이 '창의융합활동'입니다. 창의융합활동이 한 단원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과정 중심 평

가도 이루어지고, 정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흥미의 요소들을 많이 넣었는데, 현장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웃음). 물론 선생님들이 재구성하시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정성을 쏟았던 통합적인 활동이라 아쉬움이 큽니다.

생각해 보면, 설명을 더 많이 해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번 그 과정이 반복되고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 활동까지 하기엔 힘드신 거죠.

아마 타 교과서도 똑같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활동을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 하나만 지도하셔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교과서 만들기"

배 저희 교과서에서는 이에 놀이를 하듯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활동 중심 교과서를 지향하며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고, 붙이고, 조작하는 실감형 활동과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한 빙고 놀이, 주사위 놀이 등 재미있으면서도 알찬 내용들을 담아 생동감 넘치는 수업을 열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아이들이 교과서를 갖고 놀 수 있는 교과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교과서로 만들고, 애정을 갖고 같이 즐겁게 활용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유산과 박물관과 관련된 단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교과서에서는 그 단원에서 자신만의 관점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지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유물을 보는 다양한 방법을 학생들이 직접 구현할 수 있게 길라잡이를 제시하고, 이를 직접 교과서에 직접 쓰고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QR 코드 활용"

한 저희 교과서는 차시마다 확인하기가 있고 그 확인 더하기라고 해서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로 들어가면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 볼 수 있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태블릿 PC 다 충전해서 꺼내주고 와이파이 안 잡혀 있으면 다시 갖고 와서 잡아주고 등 그 짧은 수업 속에서 활동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QR 코드가 되게 유의미하고 고르고 골라서 넣어놨으니 정말 활용하시기에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회 시간에는 언제든지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과서에 있는 QR 코드를 학생들이 많이 찍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과서 맨 앞에는 단원 도입과 단원 마무리에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귀여운 캐릭터와 긍정적인 말이 쓰여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시면 사회시간이 더욱 더 풍성해지고 재미있어질 거에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지면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박 저희 교과서는 지면으로 제한된 부분들을 뛰어넘기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사진에 대한 추가 설명, 국가유산 소재 박물관 접속 기능 등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주제 도입시 이 주제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추가 정보 등을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해 보기에 수월할 거예요.

앞으로의 사회과 교과서

"종이의 한계를 벗어나 AI로, 고민하면서 발전하는 교과서가 되길"

김 앞으로 사회 교과서를 계속 사용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QR 코드 같은 경우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화면에 교과서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고 거기에서 일정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관련된 자료들이 나타나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AI가 추론형과 생성형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꼭 AI까지 가야 되나?"라는 의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 교과서가 종이의 한계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디지털 혹은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AI 될 때까지 어쨌거나 우리 집필진들과 각 출판사들이 많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더 디지털화되고 AI와 접목된 교과서의 이상적인 그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좀 더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출판사마다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아쉬운 거는 국가적인 지원이나 예산 때문인 것 같아요. 범국가적인 든든한 지원이 없으니 열심히 만들어도 활용이 안 됐던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하는 힘을 키우는 교과서"

배 앞으로 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이 (결국은 AIDT나 AI도) 질문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문해력 관련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필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교과서 방향은 의외로 좀 아날로그적인 접근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들이 책을 읽고 생각의 깊이를 찾아가야 될 때인데, 감각적이고 휘발성 있는 지식들이 지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교과서가 갖고 있는 힘은 그런 것 같아요. 한계도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공공 지식으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과 기본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그 의견을 나누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 교과서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개발 개선"

한 앞으로 사회 교과서 개발 방향성을 정하기에 앞서 저는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에 대

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긴 학습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게 아쉬워요.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식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리 단원에서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도의 요소들을 학습하고 지도에 대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중등 사회의 축소판이 아닌 초등 사회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그 교육과정이 잘 반영된 사회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친근한 사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회 교과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박 사회과의 영역 및 주제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높은 활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과서 서책으로 공부하면서 직접 연필로 서술하며, 표현해 보는 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사회과 교과에서 추구하는 각 역량의 함양과 관련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지? 이때 서책과 스마트기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교사 간 자발적인 교류와 공유로 이뤄졌음 하는 마음입니다.

김 검정 체제로 전화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집필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교과서를 집필하는 층은 아직도 두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층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현장의 다른 선생님들께도 교과서 집필이나 교과서 개발 참여에 관심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이 마련되면 더 풍성한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발된 검정 교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과서와 수업의 다양성이 많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국정과 달리 다양한 수업 교재, 수업 아

이디어가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제공된 것이지요. 다양한 메뉴가 있는 뷔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뷔페에 초등 사회과의 고유한 수업 논리를 담고 학생들이 그 논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경험할 수업 팁을 담는다면 검정 교과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검정 교과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지만, 이 논의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방향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검정 교과서 개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담 내용이 현장 교사들과 앞으로 검정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정 교과서 개발 체제로의 전환이 현장 교사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교과서와 수업,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